



재외동포청과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(INKE)가 손잡고

우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길 연다

- 재외동포청·벤처기업협회, 전북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MOU 체결

□ 재외동포청과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(INKE)가 손잡고 우리 스타트업의 전 세계 해외진출길을 연다.

○ 재외동포청은 (사)벤처기업협회가 운영하는 INKE와 국내 벤처·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간 정보공유 및 사업협력을 도모하는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.

○ 체결식은 23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에서 열렸다.

○ INKE는 현재 21개국 40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업인 100여 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 단체다.

□ 이번 MOU에 따라 두 단체는 ▲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▲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 참석유치 ▲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간담회 공동 개최 ▲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공동 협의된 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.

□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“테크 기반의 국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벤처기업협회와 INKE 네트워크가 재외동포 정책 및 사업 컨트롤 타워인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게 해외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회원 간 사업교류의 기회를 모색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	책임자	과 장	이 경 아	032-585-3220
		담당자	사무관	황 인 용	032-585-3293
담당 부서	벤처기업협회	책임자	본부장	박 태 근	02-6331-7087
		담당자	과장	이 상 배	02-6331-7083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